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庚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趙大濟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9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TEL: (051) 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叻代辦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 (02) 783-0071-2 F: (02) 783-0073



본부동창회 제37차 정기총회 개최

조대제 (7회) 신임 회장 선임

본부동창회 제26대 회장에 조대제 (趙大濟·7회·협성개발 대표이사) 부회장이 선임됐다.
조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동창회를 젊고 강하며 열린 조직으로, 반갑고 즐거운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지구촌의 동문-가족을 더욱 응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부동창회는 2월11일 오후6시4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중무홀에서 4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정기총회(사진)를 열고 임원 개선을 통해 집행부를 새로 출범시켰다.
정소영(鄭昭永·6회·정소영치과의원장) 본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임기를 통해 용마가족 여러분의 성원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정진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득호(11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박동렬 부회장(8회)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회장단 등 소개, 유공동문 표창, 주요의안 심의, 임원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정 회장은 홈커밍데이행사 유공자인 장정·김종각 동문(이상 13회), 김종규·구자섭 동문(이상 23회), 윤성국·손학근 동문(이상 33회)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날 총회에는 해수부장관을 지낸



조대제 신임 본부회장
본부운영·용마장학회
1999년 결산보고 승인
장 청(13회) 등 6명 공로패
신년 단합회도 열려

정상천 고문(4회)과 본부회장단, 김성찬 경남고(12회) 및 주기민 경남중 교장(16회), 제경동창회 김경희 고문(9회) 및 김성규 회장(11회), 김혜의 최태환 및 울산의 조준탁 회장(이상 13회), 대구의 윤일희 총무(28회) 등이 참석해 환영을 받았다.
총회는 주요의안 심의에서 1999년 △본부(1억1011만여원) △회보(3483만여원) △용마의 밤 행사(3042만여원) 등 운영에 대한 결산 보고를 강진평 본부감사(10회)의 감사보고를 들은 후 승인했다.

또 1999년 △용마장학회 법인기금(1억9255만여원) △일반회계(2억4366만여원) 운영 결산보고를 방봉우 장학회감사(10회)의 감사보고를 들은 후 통과시켰다.
그리고 총회는 강진평 감사가 발의한 ‘2000년 본부운영의 1억6054만여원과 회보운영의 4719만여원 규모 등 예산안, 2000년 용마장학회 법인기금 1억6392만여원과 일반회계 2000만원 규모 예산안의 새 회장단 집행’을 결의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회장 선출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정상천 고문이 사회를 맡아 진행, 조대제 부회장을 만장일치 새 회장으로 뽑았다.
한편 2부 신년단합회에서 참석동문들은 정상천 고문 김성규 제경회장 김경희 제경고문 순의 제의에 따라 축배를 들었고 회장단의 축하케이크 커팅에 이어 회식을 즐겼다.
1999년 결산이사회
한편 본부 1999년 결산이사회가 1월28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뷔페(본부회관 14층)에서 열려 본부운영·회보·용마장학회 등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심의했고, 제26대 회장으로 조대제 부회장(7회)을 추천했다.

취임사

본부회장

조대제

국내의 용마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일들이 형통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최근 본부동창회 제37차 정기총회에서 동문 여러분의 총의에 따라 제26대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명예로운 이 직분을 충실히 수행, 용마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먼저 진실한 집행부를 구성해 젊고 강인한 동창회로 발전시키며 진향적인 의견들을 수렴·반영할 것입니다.
밖에서는 우리 경남중고 동창회를 두고 조직성과 잠재력, 화합성과 응집력, 도전성과 성취력이 뛰어나 어느 동창회보다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용마정신을 더 한층 계발하는 데 신명을 흔쾌히 바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용마가족 여러분의 한결 같은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최근 몇 년 사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니 그 여파가 동창회 운영에까지 밀려와 고통을 감수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영광스러운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갖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영광은 용마가족 개개인이 자기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며, 서로 협력하고

환경 개선, 야구부 증흥 등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임기 중 다음과 같이 운영 ‘정보·문화·인간존중’이 화두인 이 역동의 시대에 동창회의 좌표를 새롭게 정립하려 합니다.
첫째, 동창회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동기회별로 추천된 본부부회장과 각 동기회장들의 진솔한 의견들을 충실히 수렴하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용마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즐거워 하고, 자주 만나고 싶어하며, 항상 모임에 나가고 싶어하는 동창회’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풍토를 확충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항상 신뢰받는 동창회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셋째,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지역동창회의 동문-가족들이 쌍방향으로 동창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동창회의 어려운 재정 확보를 위해 홈미유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동문-가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 발전 기금과 용마장학회 기금을 확충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드높이고 도약하기 위해 본부동창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대동단결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 행운을 누리십시오.

力動의 동창회 건설

조대제 신임 본부회장은 부산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 대학원 경영학과를 수료했으며, 협성개발(주) 대표이사(건설업체로 특허 전기기사 실적 많음)로 활약하고 있다.
조 회장은 다년간 본부 부회장 및 이사, 동기회장 등을 역임했고 특히 지난 90년부터 95년까지 본부 사무국장을 맡아 조직 활성화와 용마가족 화합 및 결속에 앞장섰었다.

제10회동기회 임원 명단

- | | | | | | |
|-------------------|--|--|--|--|-------------------|
| 회 장
曹相培 | 김 사
金喆熙
朴完坤 | 金相圭
金靈求
金容元
金仁喆
金林奎
金鍾源
金炫喆
羅夏淵
朴春石
卞益圭 | 薛鍾寬
孫英一
宋南進
申大守
安錦溶
尹奉熺
尹潤赫
李奉源
李相培
李相和 | 李宣衡
李昇榮
李元弘
李義道
鄭鍾萬
田英大
趙吉洙
趙亮濟
千晋旭
崔秉道 | 崔海萬
韓興錫
洪起錫 |
| 부회장
金漢祚
李秉漂 | 이 사
姜鎮平
金桂淳
金琪祐
金大元
金相局 | | | | 총 무
徐定喆 |

시·평

뉴질랜드 경제·사회·교육

한국의 2.7배인 국토와 약 370만명의 인구를 가진 뉴질랜드는 푸른 잔디와 깨끗한 물과 공기로 가득찬 복받은 나라다. 9년만에 정권이 중도우파인 국민당에서 중도좌파인 노동당-연합당 연립내각으로 바뀌었다.

물가는 예년처럼 연 3% 미만으로 안정적이다. 급리는 정부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워낙 낮은 수준(주택용자 변동금리 6%대-소매기준)을 유지한 이유 등으로 앞으로 1~2년 동안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부동산도 2년 전 피크에 달했을 때보다 오클랜드 도심의 아파트와 중상류 단독주택가를 중심으로 30%정도 거품이 빠진 이후 10~20% 상승 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 교민들은 한국 관광객과 유학생 관련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IMF라는 폭격을 맞은 후 잡화소매점 세탁소 택시기사 빌딩청소 등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 교민연계는 한국 교민사회가 안정되려면 적어도 3만명의 교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어시험이 추가된 1996년 10월 새 이민법의 시행으로 새 이민자의 유입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곳 시민권을 받은 교민 중에는 일자리를 찾아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역이민이나 캐나다, 호주 등지로 이민을 떠나기도 해 현재 교민수는 2만명에서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든 추세다.

뉴질랜드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호주와 더불어 상당히 높다. 고교인 칼리지와 8개 대학이 모두 국립이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대신 상당한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입학은 쉽지만 졸업이 무척 어렵다.

인터넷과 더불어 영어가 '새 천년의 키워드'라는 점에서 뉴질랜드 이민 또는 유학생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성적이 크게 떨어진

뒤에야 뒤늦게 후회하는 부모들도 많다. 결국 영어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고 수업에 자주 빠지다가 결국 더 낮은 수준의 학교로 옮기든가 그만 두는 일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영어 쓰는 나라에서 영어과외를 한다면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흔해 있는 일이다. 이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종적으로 각자 자기 나라 아이들이끼리 모여 지내는 경향이 많아 일상 생활회화조차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학생 중 일부는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학생 개인의 저조한 학업성취도와 비뚤어진 품행으로 한국 유학생의 이미지를 호려놓는 일도 종종 있다.

반면에 항상 부모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 공부하는 교민 자녀들은, 각 학교에서 발군의 실력으로 현지인들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내거나 심지어 수석으로 중고교를 졸업하는 이들도 꽤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점점 지구촌화되고 있다. 세계 곳곳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민해 현지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릴 때 우리나라의 국력은 더욱 더 신장되고 발전해 나

갈 것으로 믿는다. 이는 전세계 해외 화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막강한 화교경제권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점에서 도 잘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500만명을 넘어선 우리 교민들을 네트워크로 형성해 고국에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해외동포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 통과'소식은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끝으로 처음 오클랜드 공방에 도착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일에 부닥칠 때마다 자기 일 같이 보살펴 준 이곳 동문들과 만나면 타국 뉴질랜드의 동문들에게까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고국의 동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차 준 호

(18회·옛이름 순도·뉴질랜드 회장)



물가 연3% 유지
교민 IMF 극복
자녀들 발군의 실력

양정우(14회) 일신병원 병원장취임



양정우(梁晶宇·14회·사진)동문은 부산 일신병원 부원장 재임 중 1월 3일 이 병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최고의 유방암수술 권위자인 양동문은 74년 이래 일신병원에서만 26년간 근무하면서 외과과장 진료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부산대 의대를 졸업했고 이 대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에서 소아외과를 연수했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도 취득했다. 현재 부산대 의대 외래교수.

이백제 회장 선임 제16회 임원 개선



제16회동기회는 2월18일 오후 6시 부산 중구 대청동 옥정프라자 6층 '그랜드 뷔페'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백제 동문(평진건축김리공단 회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홍정길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2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에 이어 임원을 개설했다. 감사에 황규정 동문을 선출한 후 부회장 및 이사 선임권은 신임회장에 게 위임했다.

가족초청 친교 돈독히 진주 신임회장 강환섭



진주지역동창회는 구랍 20일 오후 6시 30분 경남 진주시 동방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환섭 동문(19회·강소아과의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박기주 회장(17회)이 주재한 총회는 50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 승인 및 임원을 개설했다. △회장=강환섭(19회) △부회장=정순일(19회) △감사=김채영(31회) △총무=우종덕(26회)·김상용(31회·부총무).

'지역개발사업 제2섹터방식 활성화' 정책대안 제시

클로즈업

정영석(24회) 금정구청 부구청장 경제학박사 학위받아

정영석 동문(24회·부산 금정구청 부구청장·사진)은 2월18일 동의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은 '제3섹터방식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행정전문가로 부산시 공보관 등을 역임한 정 동문은 경제학박사로 거듭난데다 학위논문을 통해 민관협력의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제3섹터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정개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화제다.

정 동문은 이 논문에서 △제3섹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경영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편 △제3섹터 사업 지원 특별법 제정 △제3섹터 사업 참여 민간부문의 경영자출권 보장 등 6개항을 제시했다.

그는 "제3섹터방식에 의한 지역개발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선정한 것은 현재 지역사회복지와 지역개발사업 등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금정구청 재직 중인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외국 영화인과 외신기자 등을 초청, 금



정산과 범어사를 홍보했다. 또 '고당함미와 아기장수 새해맞이' 행사와 어려운 이웃돕기를 위한 '아름다운 구와2000운동'을 기획했고, 금사공단 후원 교수단을 결성, 지원하고 있으며 김치박물관을 유치 중에 있는 등 '걸어 다니는 아이디어뱅크'로 통한다.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정 동문은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한 후 공직에 투신, 부산시 지역경제과장·시장 비서실장·공보관 등을 지냈다. 총무처 추천 국비유학생으로 미국 남가주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국무성과 일본 건설청에서 연수.

울산지역동창회 '영구전화번호' 구축 집행부 구성 사업확정

울산지역동창회는 1월10일 집행부를 새로 구성하고 동창회 영구번호(052-267-2355)를 마련하는 등 조직 활성화 및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그동안 잦은 연락처 변경으로 겪었던 불편을 동창회 영구번호 신설로 해소하게 됐다. 조준탁 회장(13회)은 △집행부의 기수별 고른 인배 △기금 모금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정보교환을 위한 지역 소식란 마련 등 사업계획을 밝혔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정원준(3회) 김기홍(4회) 김상식(8회) 유병철(9회) 차수명(12회) 김익도(12회).
- △회장=조준탁(13회)
- △부회장=육창용(13회) 유영철(14회) 이영정(15회) 지수신(16회) 김길우(17회) 한기대(18회) 권정덕(19회) 정상구(20회) 박일송(21회) 박홍조(22회)
- △감사=김성규(10회) 정갑윤(23회)
- △사무국장=조광수(13회)
- △총무=손수일(25회·수석) 김인수(35회).

양취부(16회) '여러분...'출판기념회

양취부 동문(16회·전 KBS장원총국장·사진)은 1월 17일 오후 6시 경남 창원시내 인터내셔널호텔 대연홀에서 자신의 칼럼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동기생 60여명과 공민에 창원시장(27회)등 동문 100여명 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했다.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양 동문은 KBS기자 북경특파원 정치부장 해설주간 등을 역임했다.

박소용(16회) '아름다운 세상...' 출간

박소용 동문(16회·경남방송아카데미 원장·사진)은 1월 21일 오후 6시 경남 마산시내 로얄호텔 대연홀에서 동문을 비롯해 마산시장, 지역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방송·문화 그리고 삶'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정기연주회를 앞둔 다솜합창단 단원들이 2월24일 동이대교회에서 연습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솜합창단 정기연주회 "절찬"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경남과 음악부 출신 동문들로 구성된 '다솜합창단'의 새 천년 첫 정기연주회가 본부동창회 후원으로 2월28일 오후 7시30분 부산 남구 대연동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려 절찬을 받았다. '용미의 비상'을 주제로 이날 막을 올린 다솜은 오페라 합창 '첫사랑'과 '순례자의 노래', 세계민요 '매기의 추억', 성가곡 '사랑이 없으면', 팝 '마리아', 우리가곡·민요

'신고산타령' 등 20여곡을 이날 선사해 부산의 음악 애호가들을 매료시켰다.

다솜(사랑)합창단은 88년 '다솜중창단'으로 출범, 활동을 펼치다 95년 가람아트홀에서 창단연주회를 열고 본격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각 대학·성당 등 연주회, 서울 KBS홀 공개방송, 부산시립청소년 합창 공연, 부산문화회관과 용미의 밤 행사 등을 통해 매혹의 화음을 선사했고 부산·경남의 각종 음악 경연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했다.

전기환 회장 취임 제21회 새 집행부 구성



제21회동기회는 1월19일 부산 사하구 피정동 '진미식당'에서 새 천년 첫 정기총회를 열고 전기환 회장(혜성병원 원장·사진)을 취임시켰다.

전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에 이어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원을 개설했다.

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려한 힘이나마 동기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쏟겠다"며 "동기회 운영과 임원진 개선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부동반 단합 한마당 제22회 새회장 손경운



제22회 동기회는 구랍 30일 오후 7시 부산 코모도호텔 회락정에서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열고 손경운 동문(토목기술사·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구자룡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부부동반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의 2부 여흥에서는 이 밴트를 초청, 다양한 게임을 벌여 '한마음'을 연출했고 부부노래자랑을 즐겼으며 행운상 추첨 등으로 귀한 선물을 한아름씩 받았다.



‘인전경남’ 8호 발간

인천지역동창회 소식지 ‘인전경남’ 제8호가 1월20일자로 발간됐다. 새 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발간된 ‘인전경남’에는 회장의 신년사와 결산보고, 정기총회 소식, 회원동정, 생일·결혼기념을 맞은 동문 소개 등이 실렸다. 최재용 회장(11회)은 ‘새 천년 새 아침에 새로운 시작을...’ 제하의 신년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동창회, 즐겁고 반가운 동창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창회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강민승군 등 8명 용마장학금 받아

모교 졸업식 거행

경남고 제54회 졸업식이 2월 11일 오전 11시 학교 체육관에서 열려 졸업생 631명을 새로 배출했다.

김성찬 교장(12회)이 주재한 이날 졸업식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김근준 용마장학회 이사장(1회)·조대제 본부회장(7회)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조대제 본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졸업하는 후배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근준 장학회 이사장과 조대제 본부회장은 학생회장 강민승군을 비롯해 이성훈 임창섭 김현우 이정필 박성배 민병철 박기홍군 등 서울대에 진학하게 된 8명에게 용마장학금(1인 50만원)을 수여했다. 동창회장상은 강민승군이 받았다.

한편 경남중 제57회 졸업식이 2월12일 오전 10시 학교 체육관에서 주기민 교장(16회) 주재로 열려 졸업생 424명을 배출했다.

이날 조대제 본부회장은 격려사에 앞서 장현수군에게 회장상을 수여했다.

용마장학회 1999년 법인기금(표A)·일반회계(표B) 결산 명세서

(표A) 1. 수입 (단위: 원)			
과 목	적 요	금 액	
이월금	1998년도 결산이월금	881,276	
이자수입금	부산은행 기본재산예금이자 부산은행 보통재산예금이자	150,508,331 11,206	
법인세 환급	1998년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41,151,460	
합	계	192,552,273	
2. 지출 (단위: 원)			
구 분	적 요	금 액	
고유목적 사업비	장학금	21,600,000	
	야구용구비	41,610,000	
	금로	79,400,000	
	연구비	4,300,000	
	야구부 지원비	6,151,900	
운영비	인건비	3,300,000	
운영비	5,217,100		
선납법인세	이자소득법인세	30,762,260	
이월금	보통예금통장이월	211,013	
합	계	192,552,273	

(표B) 1. 수입 (단위: 원)			
과 목	적 요	금 액	
이월금	1998년도 결산이월금	206,281,798	
이자수입금	일반회계 기금 예금이자	19,187,427	
동기회출연금	기회 기부금(98년 미납분-7회기)	19,000,000	
차입금	일시차입금	200,000	
합	계	243,669,225	
2. 지출 (단위: 원)			
구 분	적 요	금 액	
야구부지원금	전국대회 출전보조비	17,000,000	
	동계훈련및 선수육성비	5,430,000	
	선수격려비 등	2,874,000	
	경조사비·제세등	2,454,300	
	각종전지훈련비 등	1,800,000	
모교지원금	교직원 연구비 등	7,500,000	
대여금	대여금	27,826,200	
기타제비용	이사회회의비 등	3,660,000	
이월금	기금예탁·보통예금통장이월금	175,124,725	
합	계	243,669,225	



1월2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정기총회.

“잠재력 살려 다시 도약을” 제12회 부산 이용언·서울 이규만 회장 유임

제12회동기회는 1월 20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중구 대청동 코모도호텔 로텍도홀(15층)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개최, 이용언 회장(동아대 학병원 약제국장)을 유임시켰다. 이날 총회는 서울 대구 진주 울산 거제 등 경향 각지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석, 집행부를 유임시켰고 퇴임했거나 영전한 동문들의 이야기 등으로 화기에애하게 진행됐다.

유임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고문=강수현 권연상 김광일 김철기 박보국 안영규 조철원
△회장=이용언
△부회장=남기용(수석) 김부환 김준철 이창대(총무겸임) 장동석 정대식
△감사=오세정.



이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난해 11월19일 이사회에서 추천한 새 집행부를 인준했다. 이 회장은 동기회의 발전과 동문 유대강화에 힘쓴 김석일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새로 구성된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이규만
△부회장=권봉현(수석) 김동렬 김영길 양재근 이승문 홍두표
△감사=임성삼.

제12회 재경동기회는 1월27일 오후6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심사록(서영대 동문 운영)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규만 동문(K.M.L 대표이사·사진)을 유임시켰다.

용마장학회 '99결산이사회

법인 1억9200만원·일반 6854만원 집행 승인 올해 예산 법인·일반 총 1억8392만원 통과

본부동창회의 (재)용마장학회(이사장 김근준·1회)는 1999년 법인기금 13억 2888만여원을 운영, 조성된 이자 수입금 등 1억9255만여원으로 모교장학금·연구비·야구지원비 등 모두 1억9234만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결산됐다.

또 일반회계 계정에서는 기금 2억 528만여원을 운영, 조성된 이자 수입금 등으로 모교지원금·대여금 등 모두 6854만여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위 별표 참조).

장학회는 회계 중 예탁기금의 이자 수입이 금리수준 하락으로 계속 감소했으나 제반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금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으로 평가됐다.

용마장학회는 1월19일 오후 5시 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회관(골든오피스텔 4층) 장학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99년 결산보고 및 2000년 예산안을 심의, 승인했다. 이사회는 이날 법인기금 계정의

2000년 예산안 1억6392만여원과 일반회계 계정 예산안 2000만원에 대해 심의, 이를 통과시켰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법인기금 경우 1999년 총수입은 1억9255만여원으로 이 가운데 이자수입은 1억5052만여원, 법인세 환급금은 4115만여원, 이월금은 88만여원이다.

이에 대해 목적사업비로 1억5306만여원(장학금 2160만원·모교연구비 430만원·경남고 야구부 지원비 1386만원), 선납법인세 3076만여원, 운영비 835만여원, 법인등기비 16만여원 등 모두 1억 9234만여원을 집행했다.

또 일반회계 경우 총수입 2억4366만여원(기금 이월금 2억 528만여원 포함)에 대해 모교 야구부 지원비(전국대회 출전 보조비 등) 2955만원, 모교지원금 750만원(진학지도비 등), 운영비 366만원, 대여금 2782만여원 등을 집행하고 1억 7512만여원을 이월시켰다.

이 예산안을 승인했다. 새 집행부 구성은 이사회에서 추진키로 했다(김경진 총무 사회).

문 선임회장은 김태우 직전회장과 소식지 발간에 수고한 김현수 동문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총회를 마친 동문들은 코모도 청사초층에서 2차 모임을 가지고 우정을 다졌다.

한편 제27회재경동기회(회장 안중석)는 2월24일 서울 서초동 두레토속음식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한상훈 동문(대건불이건축사무소 대표)을 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제27회 부산·서울 총회 문두찬·한상훈 신임회장



제27회동기회는 2월25일 부산역 앞 아리랑관광호텔 봉황실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열고 문두찬 수석부회장(문두찬피부과의원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태우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7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에 이

제22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강봉 기봉성 진주수수철표열상선모
강성만 영원영종승언성재대성
김영원 김영종 김승언 박박박이

이우유허황명구회손부김김김
이우유허황명구회손부김김김

박이장장정이금강김김김김김김
박이장장정이금강김김김김김김

귀영대대중중연연진형민상상웅재성
박영대대중중연연진형민상상웅재성

정정주주최한재이감김총
정정주주최한재이감김총

구영회 회 장 강봉기(서·중·동·영도) 김원주(남·수영·해운대) 김영진(부산진·동래·연제) 배춘식(사하·북·강서)
둘둘산우회 회 장 최일용
둘둘기우회 회 장 임종수
둘둘골프회 회 장 김만성
둘둘낙시회 회 장 김성재
재경동기회 회 장 김창해
마·창지역회 회 장 강상대
울산지역회 회 장 박홍조

“고된 마음 말끔히 씻자”

마산-창원지역 송년회 ... 행운상 하성일(22회) 등 차지

마산-창원지역동창회 '99용마의 밤'행사(사진)가 구랍 17일 오후 7시 경남 창원시 중앙동 인터내셔널호텔 5층 대연회실에서 동문-가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기념식에서 이수창 회장(17회·경창관광 대표이사·창원상의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성원을 변함없이 보내준 용마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화합하고 결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득호 본부 사무국장(11회)의 축사, 격려사, 유공동문 표창으로 진행됐다. 2부 여흥은 정승수 사무국장(19회·축협 서부경남대리점 상무이사)의 사회로 노래 및 장기자랑, 게임, 행운상 추첨 등으로 펼쳐졌다.

우정상은 김관(14회·세양월드지사장) 정명수 동문(34회·LG캐피탈 창원지점장)이, 행운상은 하성일 동문(22회·신광택시 대표·본부회장

상)과 공민배(27회·창원시장)부인(마창회장상)이 각각 수상했다.

그리고 출연자들은 각 기별과 동문들이 협찬한 기념품(70여점)을 받았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해지역동창회 최태환 회장(13회·전 시의원)이 참석,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가지산서 심신단련 경구산악회

제9회동기회(회장 임종조) 경구산악회는 구랍 29일 가지산(1240m)에서 20세기 마지막 등반대회를 열고 우정을 다졌다.

한동대 산악회장이 주재한 이날 산행은 12명의 동문이 참석, 석남터널~정상~쌀바위~귀바위~운문령 코스로 내려왔다.

일행은 하산 후 탄산유황온천에서 겨울산행의 피로를 풀고 언양메기탕 집에서 뒤풀이를 가졌다.



화왕산 '역새불길' 도전한 용마부부

경남 창원군 화왕산 정상에 펼쳐진 대평원이 새 천년 첫 정월(보름날)인 2월 19일 오후 역새 타는 불꽃으로 장관의 파노라마를 이룬다. 이날 수천명이 모인 가운데 제16회 김인국(金仁國) 오목지(吳玉子)부부가 유일하게 뜨거운 불길 앞에 도전,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제16회 일육산악회 40여명 화왕산 역새평원 불꽃잔치에

김인국부부 '달집에 불이야' 대상 차지

제16회동기회 일육산악회(회장 강중국) 동문-가족 40여명이 새 천년 첫 정월대보름날인 2월 19일 경남 창원군 화왕산 정상(737m)에 펼쳐진 5만7000여평의 역새평원에서 열린 역새태우기행사에 참가, 도전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4년만에 재현된 이날 '역새불꽃' 파노라마는 장관을 이뤄 제16회동기회를 포함, 10여 동기회의 동문-가족 수백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산꾼들과 지역주민, 관광객 등 수천명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날 오후 1시 부산을 출발한 일육산악회 일행은 오후 5시 화왕산 정상에 올라 서태복 산행대장의 리더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산신제 △달집 살기 △화왕복음림 △집단지행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가, 한해의 소망을 기원했다.

특히 김인국-오목자 부부는 불뿔전의 용마정신을 살려 접근하기 힘든 역새불길 앞에 도전(사진 위), 참관자들로부터 박수갈채와 격려의 환호를 받았고 '달집에 불이야'대상을 수

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에서 강양수 양경석 채경일 하호길 동문 등 4명이, 부산 등지에서 가족동반 38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 화왕산밀 옥천식당에서 저녁회식을 한 후 귀가길에 올랐다.

한편 일육산악회는 1월16일 경주 금오산에서 1월 정기산행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의 강양수 채경일 동문 등 17명이 참석했다.



재경8회 클럽별 활동

3월2일 안성 C.C서 잔디회, 새해 첫 티샷

잔디회(회장 이창근)은 날씨 관계로 2월 한달은 쉬고 3월2일 오전 10시 안성 C.C에서 3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경팔산우회 관악·도봉산에

경팔산우회(회장 김영철)는 1월15일 도봉산에서 15명의 동문이 참석

우승 차진한·준우승 이상줄

경구기우회 99결산대회

제9회동기회 경구기우회는 구랍 25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동기회사무실에서 20명의 동문이 참석한

한 가운데 등반대회를 열고 겨울산행의 진미를 맛보았다.

회원들은 앞서 8일 관악산에서 새 천년맞이 첫 산행을 즐겼다. 특히 눈보라 속을 걷는 힘든 산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의 건강을 빌며 우정을 돈독히 했다.

팔선회 8명 1월 친선대회

또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1월8일 서울 강남 '자스민기원'에서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친선대회에는 이유환 이창근 신현주 윤태영 손대근 이종수 강성태 조석제 동문 등이 참석했다.

가운데 99결산 회장배바둑대회를 열었다.


화태진 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국에서 우승 차진한(3급)·준우승 이상줄 동문(6급)이 각각 차지했다.

정겨운 수담을 즐긴 일행은 박가네 식당에서 밤늦도록 술잔을 나눴다.



화왕산 '역새불꽃'잔치에 참여하기 전 포즈를 취한 일육산악회 동문-가족들.

김정곤 회장 선임 제8회 임원 개선



제8회동기회는 1월7일 오후 6시 부산 동구 범일동 '석 화그릴'에서 2000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곤 동문(부경대 교분자공학과 교수)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박동렬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결산보고를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고문=공상태 김갑득 노선태 박동렬 이운조 이춘기 장혁표
△회장=김정곤
△부회장=김봉길(수석) 백옥현 심재홍 이태호
△총무=도은영
△재무=정인호(유임).

조상배 신임회장에 제10회 새 회장단 구성

제10회동기회는 구랍 9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화촌'에서 99정기총회를 열고 조상배 동문(수정산업개발 회장·사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고흥수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6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조상배
△부회장=김한조 이병표
△감사=김철희 박완곤
△총무=서정철.

제31회동기회 임원 명단					
고문	부회장	감사	안병곤	서태교	홍철민
최동식	김기정	허일현	배정우	심규열	박홍배
박무철	안용모		오민일	박희암	조종철
박재성	김만	수석총무	정원규	이상현	김상수
박종규	정주영	김판덕	최진섭	조영기	문성일
최봉근	김시현	지역총무	최효식	조성재	홍진호
권중수	정문	노성현	오용환	이기범	안기수
박경수	남기태	박세환	김영수	배인환	이용호
	정정남	변성원	김운용	전중욱	김성규
	신상하	최해영	박종호	장재훈	김영학
회장	이용식		이병태	이성식	전창수
정철수	강신효	이사	조성근	김효연	전영도
	손영태	김종준	손진기	김종립	
	천장호	김호성	박성용	손정수	
			남철우	김광수	

동문이 펴낸 새 책

김영삼회고록/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1~3권)

김영삼(3회)
전대통령 지음



대통령을 역임한 김영삼(金泳三·3회) 본부 고문이 최근 '김영삼회고록/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전3권을 펴냈다(백산서당·값각 8000원).

김 전대통령의 '김영삼회고록...'은 암흑의 일제시대였던 1927년 출생으로부터 1998년 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의 파란에 찬 우리의 현대사를 조명하고 있다.

김 전대통령은 제1권 서문에서 "나는 독재적 억압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을 한시도 잊거나 떠난 적이 없었다"며 "그래서 감감한 암흑 속의 나날에도 국민을 향해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닭의 모가지'를 버티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나는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의

길을 내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군사독재와의 투쟁사를 이같이 회고했다.

그리고 199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라는 말을 되새겼다.

'김영삼회고록'은 모두 3권8부로 엮여져 있다. △1부 '찬란한 예감'으로 출생·학창시절·결혼·정계 진출 등을 △2부 '야당시절의 초상화'로 야당의 맹장·5·16 쿠데타 전연 부정·해외출장·원내총무 5선 기록·지도자의 길 등을 △3부 '40대기수련'으로 초산태려, 40대 기수 출범 등을 술회하고 있다.

제2권 △4부 '유신에 정면으로 맞서다' △5부 '칠혹의 시대 새벽을 열다'를, 제3권은 △6부 '장엄한 드라마 6월항쟁' △7부 '코페르니식 전환' △8부 '국민과 함께 거둔 승리'를 각각 수록했다.

사상 최다 44명 참석 "감동"

대전 용마의 밤 대성황

대전지역동창회는 구립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용비집'에서 동문44명이 참석, 동창회사상 최다기록을 세운 가운데 송년회를 열었다.

특히 이명환 동문(20회)이 멀리 부여에서, 양재영 동문(30회)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출석하는 등 뜨거운 동창애를 발휘했다.

정윤모 회장(18회)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390만원 규모의 기금모금 결과를 확인하고 모금사업을 끝내기로 했으며 회칙을 개정했다. 이어 강수성 좌장(이상 18회), 최규열 동문(32회)에게 공로상을, 신봉기(29회) 최규열 동문(32회)에게 개근상을 전달했다.



대전지역 동문들이 '용마의 밤' 행사에서 다정히 포즈를 취했다.

김광수 동문(21회)의 사회로 열린 2부 여흥은 기별로 돌아가며 노래와 춤추시를 선보였고 참석 동문 전원이 한번씩은 무대 위로 올라 실력을 과시했다. 이날 행운상은 김동순 동문(8회)에게 돌아갔다.

얼음골·운문산 도전 이철산우회 112차 산행

제27회동기회 이철산우회는 2월13일 영남알프스 산군 중 가장 아름답다는 운문산(해발 1188m)에서 제 112차 산행을 했다.

장기남 산행대장을 비롯, 강봉호 강태영 김현수 양태종 윤지현 이인규 동문 등 7명은 이날 오전 언양 석남 오개를 넘고 밀양 남명리를 지나 입구에서 산행에 돌입했다.

일행은 석골사~1시간 걸려 높이 70m 폭포(결빙상태) 도착~상운암(2시간 소요) 앞 평지서 중식~얼음길 정상~아랫재~남명리로 하산했다.

*영남알프스 산군 중 해발 1000m가 넘는 산은 8개로 운문산 가지산 고현산 천황산 간월산 신불산 문복산 영취산(취서산) 등이다.

이글은 미국 워싱턴에 거주하고 있는 김광수 동문(20회)이 딸 제인을 먼 곳에 있는 미시간대학으로 유학시키면서 충고한 편지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와서 대학의 기숙사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너를 보니 어엿한 숙녀로 성장한 네가 무척이나 대견스럽구나. 우리 집안 처음의 해와 태생인 네가 자라면서 한 단계씩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잔잔한 감동의 연속이었다.

아이를 낳아서 하나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가정과 사회와 이웃의 눈물 사랑 정열 등 헤아릴 수 없는 복합적 유기체의 상호 연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의 성장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배웠다. 너를 기르면서 부녀간의 정과 사랑, 갖가지 회로애락의 인간적 느낌을 거쳐오는 동안 나의 감정을 더 풍요롭게 해주어 인간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 '좁은 문'을 받는다는 말이 실감나 나는구나. 너의 졸업식에서 네가 연설하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듯이 자녀들의 성취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란다.

네가 미시간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 너를 멀리 보내려고 하니 부모로서 자녀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말, 즉 너의 오리엔테이션도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도록 부탁한다.

네가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반 편성 시험에

서 주어진 문제들을 충분히 거의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아주 잘 하는 편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과목은 요구한 기본 수준 정도에서 그쳤다는 말을 듣고 저지기를 실망했다. 없는 실력을 과장해서도 안될 일이지만 있는 실력을 일부러 낮춰 평가받는 것은 치어리더를 몇 년씩이나 해온 너답지 않는 소치이구나. 실력을 적당히 나타내는 정신상태는 겸손도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프론티어정신도 아니란다.

맹수가 먹이 사냥을 할 때 얼룩말을 쫓는다

고 더 달리고, 작은 짐승을 따라간다고 천천히 행동하는

법은 없단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야 하며 그리하여 목표에 도달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노력한 삶은 그 자체로서 값진 것이 된단다.

둘째, 대학에 가서는 넓은 안목을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다. 옛날 동양에서는 학자나 상인, 장인 등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멀리 보내어 수련을 받게 하는 관습을 행하여 왔다. 이는 독립심을 기르고 넓은 안목을 터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의와는 생각과 관습이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수록 안목이 넓어지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며 편견을 버리게 된다. 따라서 네가 너의 기숙사 예상 룸 메이트의 이름과 출신지

역으로 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방 배정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인종들을 좋아하도록 노력하거라.

이곳에서 나서 자란 2세대들과 후예들이 여러 편견의 방벽을 허물어 버리고 주류 사회에 당당히 동참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너희들을 뒷바라지해온 우리들의 노력과 희생은 값진 밑거름이 되는 것이며 또한 미국을 명실상부한 일등의 문화국가로 만드는 데 큰 보탬을 하게 된다.

셋째, 남과 더불어 사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미국의 교육이 건전한 시민 육성에 있지 만 최근에는 그 정신이 많이 허물어져가고 있어서 안타깝구나.

교통 체증이 심할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듯이, 사회가 복잡할수록 시민으로서의 규범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30여년 전부터 내가 종교를 가져왔고 너의 어머니도 종교적 집안에서 나고 자라왔으며 너 또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종교교육이 도덕교육의 부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지망생인 너는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여라. 많은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적 권모술수를 쓰는데 이는 지극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을 딛고 올라서면 종국에 가서는 자기도 발목을 잡혀 끌려 내려지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너는 다른 사람을 먼저 올려주고 난 뒤에 네가 따라 올라가는 동양의 후예다운 겸양의 덕을 보여라. 성서에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들을 더 잘 섬겨야 된다고 하였다.

넷째, 한국인의 후손임을 잊지마라. 네가 어릴 적에 "다른 아이들은 한 주일에 5일만 학교에 가는데 나는 왜 6일씩이나 가야 되느냐"고 항의했을 때 "영어만 잘하면 되지 왜 한글을 배워야 하는냐"고 따지는 너를 대할 때 한국인을 부모로 둔 너에게 명예를 하나 더 써주는 것 같아 측은하고 안쓰러웠단다.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강제로 한글학교에 너의 어머니가 데리고 갔으며 나중에는 내가 부모를 이해하게 되었고, 끝에는 내가 운전하고 다녀서 졸업장을 받아온 너를 보고 한국인의 끈끈한 핏줄이 네게 스며있는 것을 느꼈단다. 그러나 너의 뿌리와 일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말과 글을 배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기에 10여년 동안 너를 한글학교에 보내왔었다. 부탁을 하나 더 있어 본다면, 앞으로 동양인을 배우자로 택하든지 네 의사대로 달리 택하든지 간에 한국인의 후예라는 긍지와 뿌리만큼 보전하기를 기대한다.

나의 제인에게 하느님의 보살핌과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사랑하는 딸에게 띄우는 父情

김 광 수 (제20회·워싱턴 문인회 부회장)

- 李孝濬(13회)=동우공영(주) 지사장
- 金寬(14회)=세양월드(주) 전무이사. (전화변경)295-9111
- 허인영(14회)=허인영 산부인과(이전)222-6062
- 金源曙(15회)=평화CMB 전무이사. 053-610-8003
- 鄭武敬(17회)=산곡기전 고문. 252-8698
- 李瑄衡(17회)=전문건설공제조합 마산지사장. 238-5675
- 鄭承洙(19회)=축협중앙회 경남대리점 상무. 284-5733
- 朴相植(19회)(주)동방마산지사장(상무). 260-9201
- 金辰炯(21회)=한국전력마산지사 부처장. 290-2301
- 金安石(27회)=창원세무서 조사과장. 239-0500
- 鄭宰昊(27회)=노동부 창원지방사무소 관리과장. 275-7630

朴孝誠(28회)=한국기계연구소 연구관. 280-3605

인천지역동창회

- 崔渭贊(2회)=1월10일 별세
- 尹龍洙(7회)=(주)유영인더스트리 부회장. 0347-762-3811. (주택)0331-265-4391
- 李奎翰(8회)=(주택)인천 부평구 산곡동 우성1차A 107동1305호. 529-7715
- 朴圭遠(12회)=(주)일진산업 대표이사. 0461-742-4243. (주택)465-4917
- 金在德(12회)=월드리서치 회장. 02-561-9009. (주택)518-2884
- 朴津(14회)=(주)KEIEM 대표이사. 816-8596. (주택)02-2615-7307

(6면에서 계속)

뉴질랜드지역동창회

- 김수홍(16회)=(주택)09-486-6963
- 李漢玉(18회)=지년대 8월30일 부친 별세
- 金鎮源(20회)=오uckland 근교 와이우크에서 글라스하우스 채소농장 경영. 09-235-6908
- 李尙秀(23회)=뉴질랜드 한인무역협회 회장. 09-415-2248
- 李世景(23회)=Christchurch 거주. 03-358-1311
- 文周列(23회)=Christchurch 거주. 03-383-1265
- 申明哲(28회)=아리랑뷔페레스토랑 대표. 09-373-3131. (주택)09-522-9491
- 金承德(28회)=AIT호텔경영학과 수료후 뉴질랜드 최고의 호텔 CARLTON 재직. 09-366-3000(교환 5622). (주택)09-529-1662

- 安駿模(28회)=재능교육 뉴질랜드·호주 본부장. 뉴질랜드:09-480-7041. 호주:02-9410-1553
- 李省勳(31회)=오uckland AIT에서 수학중. 09-529-2572
- 趙鳳萊(31회)=복합운송회사 K-1 Trans Co. Ltd. 대표. 09-307-1381
- 尹勇堤(34회)=Christchurch 거주. 03-348-3746
- 金成鍾(36회)=Christchurch 거주. 03-385-2185

일본지역동창회

- 金光信(16회)=일본지역동창회 회장(사무실 移轉)東京都中央区築地4-3-12 秀和第2築地レゾデス 411號. 03-3544-6020
- 朴陸彦(17회)=제일은행 도화동지점장으로 赴任. 02-701-1341

어디서 무엇을

- 李根培(24회)=한빛은행 천호동지점장으로 赴任. 02-484-6866
- 金永贊(29회)=분당 제생병원에 在職으로, 지년대 10월말 제7회 아시아·태평양 성기능장애학회 참석차 東京着.
- 韓承東(29회)=지년대 9월 16일 父親 노환으로 별세.
- 朴永守(29회)=일본지역 동창회 총무. yspark@daieishop.co.jp

마산·창원지역동창회

- 金正夫(11회)=경남대학총장직대
- 金康錫(13회)=마산교육청 교육장. 252-8000

(5면에서 계속)
 南元鐸(16회)=(주)중앙유통 대표이사. 655-6571. 1월15일 외교센터에서 차녀 결혼
 郭道恩(19회)=삼경에너지 대표. 02-858-3514
 李潤濶(19회)=지현건설(주) 부사장. 437-0885. (자택)675-9824
 安桂煥(22회)=영익상사 대표. 583-8091. (자택)02-535-8136
 許文俊(22회)=(주)갑진메인트넌스 대표이사. 460-1330. (자택)02-2644-5963
 朴晉弘(24회)=(자택)인천 부평구 부평1동 70-5 동아A 26동210호. 527-2350
 임원택(27회)=(주)성림필립 대표이사. 02-2263-7030. (자택)342-8093
 金正洪(30회)=지난해 12월25일 부친 별세
 朴商赫(30회)=1월9일 모친 별세
 趙顯洙(30회)=우경상사 대표. 472-8619. (자택)02-2651-5742
 林鉉元(36회)=주택은행 만수동지점. 464-1202. (자택)662-7607

제 4 회

愼重一=수경특수운수. (자택)부산 연제구 연산9동 연산 한양A 22동 506호. 758-8608

제 7 회

尹晉憲=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민족화해협력 특별위원회). 지난해 11월27일 통일정책홍보기획단위원으로 위촉
 禹載倫=1월3일 별세
 金鍾淳=그랜드헬스 개업.
 林昌植=지난해 12월초 별세

제 8 회

裴柱元=상가몰 무역 대표. (자택)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빌 A동1905호. 3461-8434
 任世一=(자택)서울 구로구 개봉1동 70-71. 2613-5947
 李圭殷=(자택)서울 은평구 신사1동 35-34. 309-0604
 李永熙=1월3일 새마당에서 아들 재준군 결혼. (자택)서울 강남구 수서동 삼익A 405동 807호. 3411-1884
 金煥=지난해 12월19일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딸 결혼
 李正允=지난해 12월16일 모친 별세
 金在汎=1월10일 모친 별세
 文炯佑=2월5일 지병으로 별세
 金程坤=지난해 12월4일 성남 분당 마태오성당에서 차남 결혼
 裴德洙=(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9 롯데4차A 506동2101호. 703-1101
 鄭仁浩=지난해 12월4일 서울대 호암관에서 장남 성문군 결혼
 金榮哲=지난해 10월23일 모친 별세
 金漢璣=지난해 11월7일 별세
 金浩奭=지난해 11월23일 63빌딩 코스모스에서 아들 석용군 결혼

제 9 회

제9회동기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신약회 등반대회, 매일 마지막 토요일 바둑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崔漢成=1월28일 허심청에서 딸 결혼
 李煥大=1월30일 국제신문사에서 장남 결혼
 姜大奉=2월4일 동아대병원 입원중 별세
 崔在鳩=(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1298 건영2차A 106동904호

金英國=지난해 8월31일 진영여자중학교 교장으로 41년 교직생활 명예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홍익장 수상
 曹石武=지난해 8월20일 부친 별세
 曹二鎬=지난해 10월21일 모친 별세
 朴漢福=지난해 10월25일 동기회에 금일봉 전달
 裴光植=지난해 11월1일 별세
 卞昌彦=지난해 11월13일 서울 내수동교회 장남 결혼
 金鍾求=지난해 11월18일 위생병원에서 투병중 완쾌
 鄭三東=삼랑진고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 동백장 수훈. 지난해 11월21일 서울 교원공제회관에서 차녀 결혼
 劉今烈=지난해 11월21일 모친 별세
 梁禹錫=지난해 11월23일 동기회에 금일봉 전달
 金容煥=(자택)부산 해운대구 우2동 동부올림픽타워 105동704호. 741-7050
 安圭鉉=(자택)김해시 안동 333-2 대아A 101동104호. 325-2997
 李大圭=지난해 12월15일 대한통운 빌딩에서 차녀 결혼
 尹辰漢=지난해 12월19일 골든웨딩프라자에서 장남 결혼
 金容冠=지난해 12월20일 동기회 금일봉 전달
 金源昌=1월3일 보훈병원 입원. 6203호
 崔漢成=1월28일 허심청에서 딸 결혼
 崔鳳憲=(자택)부산 남구 용호3동 377-1 동보빌라 A동 101호
 金台永=(자택)부산 남구 대연1동 878-1 (17/1). 628-1140

제 10 회

金東旻=부산 북구 화명동1107 화명대림타운 409동1801호. 363-7083
 康熙胤=부산 중구 동광동5가 28-19 (10/1). 441-6700
 金一圭=부산 동구 초량1동 545-7 (2/1). 441-0659
 李宣衡=부산 사상구 엄궁동 669-2 대림A 104동701호. 327-2193
 尹奉燾=부산 해운대구 좌동 1298 건영2차 111동2002호. 703-2545
 金時元=공근정초등학교 교장. 052-264-5182. (자택)052-264-5859
 高錫濠=지난해 11월6일 염광교회에서 딸 결혼
 李憲珍=지난해 11월13일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딸 결혼
 尹才謨=지난해 11월20일 강남목화에서 아들 결혼
 金在坤=지난해 12월4일 프리마호텔에서 아들 결혼
 辛奎台=지난해 12월4일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딸 결혼
 金萬郁=지난해 12월28일 공학터미널에서 아들이 건강동문 딸과 결혼
 張暮翔=지난해 12월29일 공학터미널에서 아들 결혼
 高武雄=안일여자종합고등학교 교장. 0333-681-2215. (자택)0333-655-5928
 權寧助=권소아과의원 원장. 02-434-1100. (자택)02-592-2018
 朴光春=국제방송객원해설위원. 02-781-3687. (자택)0343-458-5859
 李鐵煥=변호사 개업. 유일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02-752-3101. (자택)02-754-5035

제 11 회

李珍祥=(자택)부산 서구 압남동 350-1 고려빌라 1101호. 256-0963
 張秉洙=(자택)부산 진구 당감동 177-3 삼익A 8동107호. 891-0039
 李龍守=(자택)경남 양산시 물

어디서 무엇을

금융 범어리 695. 372-4209
 李在珍=성진종합비닐(사무실 이전) 부산 연제구 연산1동 306-21. 852-3747
 曹相默=지난해 12월29일 온천성당에서 차녀 결혼
 廉漢鎬=1월2일 목화에서장에서 딸 결혼
 姜文相=1월15일 부친 별세
 朴奉欽=1월16일 크라운호텔에서 장녀 결혼
 鄭光雄=2월13일 부산호텔에서 장남 결혼
 陣道現=2월24일 별세

제 12 회

金汶壽=1월6일 별세
 李斗榮=1월15일 별세
 金光一=변호사. 지난해 12월18일 서울에서 차남 결혼
 金壽萬=세화상회 대표. 지난해 12월22일 모친 별세
 金宗瑞=지난해 11월28일 구미에서 차녀 결혼
 金龍鎬=부산정보대학 교수. 1월29일 서울에서 장녀 결혼. (자택)부산 동래구 온천2동 럭키A 20동601호. 556-4080
 金浩洙=지난해 11월4일 모친 별세
 南基鎬=문교화학 대표. 지난해 12월5일 차남 결혼
 朴龍雲=유림정공 부사장. 지난해 12월4일 장남 결혼
 朴彰=아침신문 주필. 수필집 박창칼럼 출간. 책이 필요하신 분은 동기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安龍得=전 대법관. 서울 방배동에 변호사 개업. 02-3478-1700
 李武煥=지난해 11월7일 장남 결혼
 林元讚=지난해 11월7일 차남 결혼
 河一民=부산대학교 교수. 지난해 12월18일 장녀 결혼
 金東旭=(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1413 삼성A 111동2201호. 703-2531
 金尙茂=(자택)포항시 남구 효자동 300-4
 金喆基=(자택)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118동1103호. 744-0277
 宋世文=(자택)부산 사상구 엄궁동 225 대동A 101동801호. 324-7732
 李應淑=(자택)부산 사하구 괴정3동 447 우림그린맨션 202호. 203-8496
 李章雨=(자택)부산 남구 문현동 636 문현대림프라자 101동801호. 645-0239
 林昌完=(자택)부산 중구 대창동1가 54. 466-2009
 蔣昇在=(자택)울산 울주군 범서면 구영라 신한다움A 102동303호. 212-9589
 趙哲元=(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3 대우2차A 203동2601호. 703-1126
 曹永建=(자택)경남 창원시 명서동 9-1
 崔明鎬=(자택)부산 진구 초읍동 312-20 성진빌라 201호. 807-4728
 최수행=(자택)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9 구일우성A 210동1102호. 858-8058. 019-314-8294

제 16 회

미국 뉴욕거주 동기생(천을모 손갑출정대치 고소환들이 해비 500달러를 보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姜東官=(주)해성 대표이사. 051-626-1225
 姜仁根=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4-71 금강산빌라 나동302호. 561-1720
 琴馨九=지난해 11월6일 진주 귀빈에서장에서 딸 잔아양 결혼
 金斗應=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동성당에서 장녀 미희양 결혼
 金永一=平江! 수고했소. 격려전화부탁합니다. 02-3473-9828
 金正一=客地에서 홀로 외로이 별세
 金鍾德=지난해 10월5일 모친 별세
 金鑽汶=지난해 10월1일 부친 별세
 金泰一=지난해 10월17일 부친 별세
 盧祥鉉=부산 남구 대연4동에 외과개업. 051-622-0210
 盧承孝=(주)삼광공업 상무이사. 051-301-5501. (자택)부산 남구 대연6동 1791-27 (4/3). 644-0543
 盧泰吉=(자택)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샘마을A 307동1801호. 381-3208
 文岩泰=(자택)서울 송파구 잠실3동 주공잠실A 371동408호. 413-3191
 朴文奎=돼지목살구이 골목집 개업. 피정 동주여자대학 앞. 051-205-9760
 辛容眞=(개업)(주)신선인터내셔널.

제 14 회

서울 대연자센터빌딩 1105호. 02-319-9393
 金和玉=(주)건영 부산지사장(사무실 이전)부산 해운대구 우1동 628-5 글로리아콘도 727호. 746-4611. 지난해 11월14일 국제회관에서 장녀 결혼
 金相守=서부산경찰서 경무과장. 051-202-8555. (자택)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94-5 크로바A B동302호. 255-0867
 金永植=신라병원 원장. 051-895-0107. 2월7일 모친 별세. (자택)051-403-9611
 梁晶宇=일신기독병원 원장(취임)
 金充=본부 이사. 지난해 12월4일 해운대 조선비치호텔에서 차녀 결혼
 金勇=(주)금융 대표이사. 지난해 12월9일 오랜 투병 끝에 별세
 金德幸=지난해 12월18일 신부산교회에서 장남 결혼
 張豐吉=지난해 12월19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차녀 결혼
 河光鎬=지난해 12월25일 오션타워 3층에서 차녀 결혼
 崔慶烈=(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일A 104동1203호. 742-1781
 이흥이=지난해 11월28일 서울 공향터미널에서 차녀 결혼
 姜夏伊=롯데제과(주) 양산공장 관리이사. 0523-370-6011. (자택)051-558-4845
 李坦=재미. 지난해 11월5일 별세
 김승치=(자택)부산 북구 덕천동 성훈A 1403호. 338-2498
 尹龍男=옥포초등학교 교장. 0558-687-3207. (자택)0558-635-2292
 孔欽一=양천초등학교 교장. 051-334-0711. (자택)051-514-3244
 周甲鎬=한진미술학원 대표. 051-552-6036
 黃俊性=보민당약국 대표. 051-324-0051
 黃元奎=황원규소아과의원 원장. 지난해 11월7일 골든웨딩프라자에서 장남 결혼. 051-852-9591
 孔七星=부천약국 대표. 지난해 11월14일 서울대동창회에서 장녀 결혼. 051-467-8200

제 16 회

미국 뉴욕거주 동기생(천을모 손갑출정대치 고소환들이 해비 500달러를 보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姜東官=(주)해성 대표이사. 051-626-1225
 姜仁根=서울 강남구 역삼1동 834-71 금강산빌라 나동302호. 561-1720
 琴馨九=지난해 11월6일 진주 귀빈에서장에서 딸 잔아양 결혼
 金斗應=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동성당에서 장녀 미희양 결혼
 金永一=平江! 수고했소. 격려전화부탁합니다. 02-3473-9828
 金正一=客地에서 홀로 외로이 별세
 金鍾德=지난해 10월5일 모친 별세
 金鑽汶=지난해 10월1일 부친 별세
 金泰一=지난해 10월17일 부친 별세
 盧祥鉉=부산 남구 대연4동에 외과개업. 051-622-0210
 盧承孝=(주)삼광공업 상무이사. 051-301-5501. (자택)부산 남구 대연6동 1791-27 (4/3). 644-0543
 盧泰吉=(자택)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샘마을A 307동1801호. 381-3208
 文岩泰=(자택)서울 송파구 잠실3동 주공잠실A 371동408호. 413-3191
 朴文奎=돼지목살구이 골목집 개업. 피정 동주여자대학 앞. 051-205-9760
 辛容眞=(개업)(주)신선인터내셔널.

朴秀明=(자택)서울 광진구 능동 220-5. 447-1652
 朴元煥=지난해 10월18일 모친 별세
 朴春浩=대동메디칼. 02-562-2329
 朴弘=(자택)부산 사하구 괴정4동 삼익A 1113호. 293-0550
 房佳男=지난해 10월31일 올림픽에서 차남 우섭군 결혼
 裴二英=지난해 10월25일 모친 별세
 徐高明=지난해 11월 수요동산회 금정산행도중 다리 골절상 당함
 孫石植=명보세라믹스(주) 대표이사. 02-3474-0901
 宋圭政=2000 부산 일육골프회 회장으로서 추대
 辛平洋=지난해 12월4일 연산동 목화에서장에서 딸 은경양 결혼
 吳孝孝=(주)삼호무역통상 대표이사. 051-817-3530. (자택)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산호A 4동402호. 852-0559
 玉連洙=지난해 12월5일 올림픽에서 장남 정호군 결혼
 李啓雄=중국 靑島 대흥화섬 有限公司 공장장. 86-532-616-7500
 李均五=지난해 12월1일 부친 별세
 李相哲=한화 구조조정위원회 전문이사. 02-729-1140
 李泳宰=지난해 10월3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장남 결혼
 李永泰=지난해 12월3일 급성 폐혈증으로 주례 삼신병원에서 별세
 李應進=한석엔지니어링 고문. 02-417-1453
 李採彦=인제대병원 건강관리과장. 051-890-6160. 지난해 12월5일 보수동 광복교회 장노 임직식 봉행
 張肯相=온천장에서 평양왕갈비 개업. 051-554-0606
 田鍾植=(자택)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A 4동903호. 545-4731
 鄭淳弘=(자택)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74 삼성A 103동1401호. 648-9646
 鄭泰洽=부산남부경찰서 경무과장. 051-621-2234. (자택)부산 수영구 수영동 현대A 103동1404호. 757-2105
 曹吉宇=부산광역시의회의원. 051-557-3955. 지난해 10월22일 모친 별세
 朱洛坤=(자택)부산 사하구 당리동 325-25 부원A 5동301호. 207-4358
 韓利憲=국회의원. 02-784-3851. 지난해 11월2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딸 성민양 결혼
 許坤=골드공인중개사. 02-545-7218~9. (자택)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439-3 301호. 901-1834
 黃圭植=(자택)경남 진해시 청안동 435. 552-0797

제 17 회

朴昌鎬=미소소주방 개업. 051-255-5992
 李範烈=산정동원내 산정계르마늄 개업
 曹煥彦=(주)은진개발 대표. 051-414-9040. 지난해 10월16일 거제교회에서 장남 결혼
 李建雨=지난해 11월20일 동래 허심청에서 장남 결혼

제 20 회

金大植=1월1일 지병으로 별세. 동월 4일 부친 별세
 張相培=(개업)베네시안 페스트푸드점. (구)계일극장 앞. 245-8035
 朴時煥=(개업)스포츠맛사지센터.
 朴基祥=(개업)조양Agency. 051-440-6201
 文榮鳳=수산진흥원 과장. 1월22일 부친 별세
 姜石根=(주)우진 대표이사. (자택)

(6면에서 계속)

- 이사)부산 금정구 부곡동 대우A 103동1402호.
金龍哲=대륙중공업 사장. 1월8일 올림픽에식장에서 아들 성우군 결혼. 051-264-0009
李正鎬=부산지검 사무국장. 051-250-4321
黃明煥=홍이해운 오로리호 기관장.
崔均裁=강원산업 전무이사. 02-732-7511
朴錫炫=이수세라믹(주) 이사. 02-3445-8783
李尙憲=소당수석원 개업. 051-861-4182
芮二泰=대성합성화학(주) 상무이사. 0345-492-6465
尹熙昌=국립도서관장. 02-535-4271
朴泰植=서천화력발전소 부소장. 0458-950-2201
金永舜=대우자동차 판매(주) 상무이사. 032-520-2100
劉二祚=삼유기술연구소 부장. 02-567-7591
金信記=동국제강 형강 사업부 공장장. 0562-211-5600
鄭乙鎬=수원국립지리원 서기관. 0331-210-2560
宋永柱=정우건축설계사무소 소장. 02-415-2378
鄭聖玉=지난해 11월25일 부친 별세. 011-413-0406
金正煥=지난해 11월22일 부친 별세. 011-442-2595

제 23 회

趙光浩=CONCORD USA, INC(무역회사) 대표. 201-227-1888. (자택)201-447-0940

제 25 회

- 鄭東烈**=(주)유진네트비전 대표이사. 051-466-0947~8. 016-523-3326
李奭熙=한나라당 부산지부 사무처장. 051-625-6601~6
李相和=아키텍트 대표. 051-740-6002~3
朴鍾贊=(주)제이텍 공장 및 사무실 신축이전. 051-518-3671. 1월11일 부친 별세
金孝泰=가락안경원(이전)051-292-

4441
徐秉洙=해운대구청장으로 취임

제 27 회

- 제27회동기회는 지난해 12월18일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송년행사에서 불우이웃 돕기 모금행사를 열고 성금 33만원을 국채신문사에 기탁하였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주신 동기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趙敏濟**=기술신용보증기금 충주지점장. 0441-842-1595. (사택)842-0090
姜龍乘=삼성비서실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 이사. 02-3706-7732. (자택)956-1306
韓章元=동아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051-240-2838. 조형작품 제4회 개인전람회 서울부산서 개최
金鍾旭=교보증권 부산지점 투자신탁부 부장. 051-802-8028. (자택)627-4479
崔景龍=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 정보지원부 부장. 051-801-2400
車東珉=LG캐피탈 영남지역본부장. 상무보. 051-816-8282. (사택)816-1951
朴炳柱=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02-740-8325. 2월5~10일 국제백신연구소 한국대표로 스위스제네바에서 후진국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하고 귀국. (자택)569-7769
朴東洵=수원대학교 전자재료공학과 교수. 0331-220-2428. (자택)704-7354
白承燁=용마 이철기우회 총무. (유한회사)영진 이사. 051-316-6331. (자택이사)부산 금정구 부곡동 부곡대우A 106동2203호. 513-7438
許 韓=동방박사(현수막제작)해운대지점 대표. 051-746-7090. (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동부A 108동2302호. 703-3762
林尙秀=남천수석학원장. 051-627-0005. (자택이사)부산 남구 대연3동 1808 대연비치 203동205호. 621-7170
金性煥=범아식품(주) 전무. 051-583-0974. (자택이사)부산 금정구 구서2동 우성A 5동103호. 514-

어디서 무엇을

- 6774
金成柱=창원시청 기획실 전문위원. 0551-280-2216. (자택이사)창원시 팔용동 124 극동A 104동1601호. 0551-297-4325
金元大=해창한의원 원장. 051-245-3834. 2월10일 모친 별세
李判世=(주)명신가스 전무. 051-325-5501. (자택)803-8705
鄭承熙=서구청 민원봉사과 계장. 051-240-4263. (자택)264-7170
李 憲=장림약국 대표약사. 051-263-9907. (자택)263-1879
文奎湘=대구지검포항지청형사2부장 검사. 0562-251-7015
郭泰洪=우리들산부인과의원 원장(제주)064-724-1563. (자택)064-744-4412
鄭鐵吉=SK(주) 구조조정추진본부 상무. 02-788-7020. 지난해 12월 19일 모친 별세. (자택이사)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2차101동 1705호. 02-836-8172
許鍾煥=동양증권 부산 중앙지점 지점장. 051-464-8284. 9월 20일 부친 별세
林起大=고려실크 대표. 051-644-7300. 9월 29일 부친 별세
愼壬晟=북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051-316-6161. 10월 16일 모친 별세
金幸永=10월 18일 모친 별세
襄在洪=고려검정공사 부산사무소 소장. 051-463-4506. 10월 17일 모친 철순 고회 간치
姜炳勳=용마이철기우회 회장. 아마 5단. 부산 교통기획과 철도계장. 051-888-3383
崔源孝=김천농장 대표. 0547-435-3123. (자택)0547-430-1036.
白承二=수영지부장 051-754-5240 (기원이전)2월 22일 광안리 세화 마트건너편 향도빌딩5층.
鄭光模=명성빌딩 대표. 051-468-1523. (자택이사)금정구 구서동 신동아아파트101동2002호. 051-581-1219.

제 28 회

- 6213~5. (자택)246-5373
朴義圭(22회)=신일산업(주) 기조부장. 0345-419-1155. (자택)295-9697
徐庫輔(22회)=(주)정심테크. 02-711-5637. (자택)295-0538
강실근(24회)=(주)알트코리아 상무. 293-7881. (자택)02-556-0208
張大洛(25회)=한국석유공업 용인지사. 0335-339-2354
林亨圭(26회)=삼성전자 메모리 개발사업부 부사장. 02-760-6003. (자택)02-448-5104
金廷坤(26회)=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연구관. 290-6666. (자택)292-3545
安昌男(27회)=녹십자종합연구소. (자택)211-0480
羅燦熙(27회)=MOMMOET 한국지사장. 02-755-1666. (자택)0332-297-6202
錢忠源(28회)=J&C상사. 019-221-0472
崔奉洛(28회)=삼성전기 정보통신연구실 이사. 210-6100. (자택)02-226-2795
金成珉(29회)=태성전자부품 대표. 0339-356-2953. (자택)0343-91-7881
黃文秀(30회)=미도슈퍼. 212-2831. (자택)211-4808
金相鎭(30회)=구계산업기술연구소. 202-5100. (자택)248-3541

- 金祐宅**=김우텍소아과의원. 0523-386-6933
崔然旭=부경대 제어계측과 교수. 051-620-1633
南炳祐=마산세무서 전산실. 0551-240-0675. (자택)248-2469
姜京完=금홍종합물산. 051-465-5583
李鍾安=신영상사. 051-463-8108
朴炳俊=박병준세무회계사무소. 051-462-0203
金富允=부산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李鎭雨=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051-620-6650
金明保=신선중학교. 051-413-7512
尹琦遠=동보해운 부산사무소 차장. 051-464-3801
鄭仁植=정인갤러리 대표. 장려 서울대 약대 합격. 017-565-8202
李承夏=(자택이사)부산 금정구 부곡 2동 대우A 106동 703호. 581-3152

제 30 회

- 金光洙**=한국통신 전남전산국장. 062-528-0007
趙顯洙=우경상사 대표. 032-472-8619
梁允宗=(자택)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A 411동603호. 2642-5430
金炳淳=포스테이타 NI사업부. 02-3457-4285. (자택)02-651-9203
李海正=미국지사 발령. 212-906-8282
朴商赫=1월9일 모친 별세
朴璉明=1월11일 부친 별세
李賢熙=1월19일 모친 별세

제 31 회

- 安基秀**=(자택이사)부산 사하구 하단동 1161-2 가락타운 115동 1204호
車仁龍=(자택이사)부산 금정구 구서2동 신동아A 102동 1512호. 513-3463
朴鍾奎=(자택이사)부산 해운대구 좌동 1302 동신A 101동 2001호. 702-4708
田湘吉=(자택이사)부산 사하구 당리동 331-19 (12/2). 465-9104
金弘健=(자택이사)부산 사하구 괴정3동 398-22 신익타운 4동 1305

- 호. 201-4827
李炳泰=한국의환은행 부산경남본부 차장으로 승진. 051-463-1681
金聖憲=매종드팜(계곡점) 대표. 북구 만덕동 그린코아A 입구. 051-337-9552
최효식=캐벌해운항공(주) 대표이사. 051-464-5855

제 33 회

- 金靈煥**=김령환법무사 대표. 051-244-2832. (자택)051-758-2948. 011-554-2948
김석일=영양식품 대표. 019-511-2681. (자택)051-624-2681
金哲弘=영남건설 과장. 053-752-6001. (자택)053-783-0061. 011-398-5061
盧相植=한국피엔지 이사. 02-3498-5225. (자택)02-975-6329. 016-283-2560
閔庚台=LG정유 과장. 0662-680-2031. (자택)0662-680-5515
朴 一=울산지방경찰청 과장. 052-257-8607. (자택)052-258-6579. 018-357-6571
朴貞厚=이바코리아 대표. 02-3482-0367. (자택)02-579-2701
朴辰洙=부영제책 대표. (자택)051-469-7123
梁泳哲=울산세무소 과장. 052-259-0296. (자택)051-468-3702. 011-886-3702
芮榮贊=포항제철 반장. 0667-790-4253. (자택)0667-793-6587. 017-620-6587
禹炳準=발리단란주점 대표. 051-646-8277. 011-561-1115
尹泰雄=제일엔지니어링 차장. 0594-863-0188. (자택)02-583-1817. 011-223-1817
任哲淳=(주)트레즈 대표. 02-3484-6409. (자택)0342-704-3236. 019-460-3236
張炳燦=롯데학생백화점 대표. (자택)051-526-1613. 016-614-1613
鄭世泳=갈매기Hits 대표. 051-271-3088. (자택)051-271-1403. 017-558-2413
鄭鍾勳=사하의료보협조합 대리. 051-204-1224. (자택)051-261-6086. 011-562-6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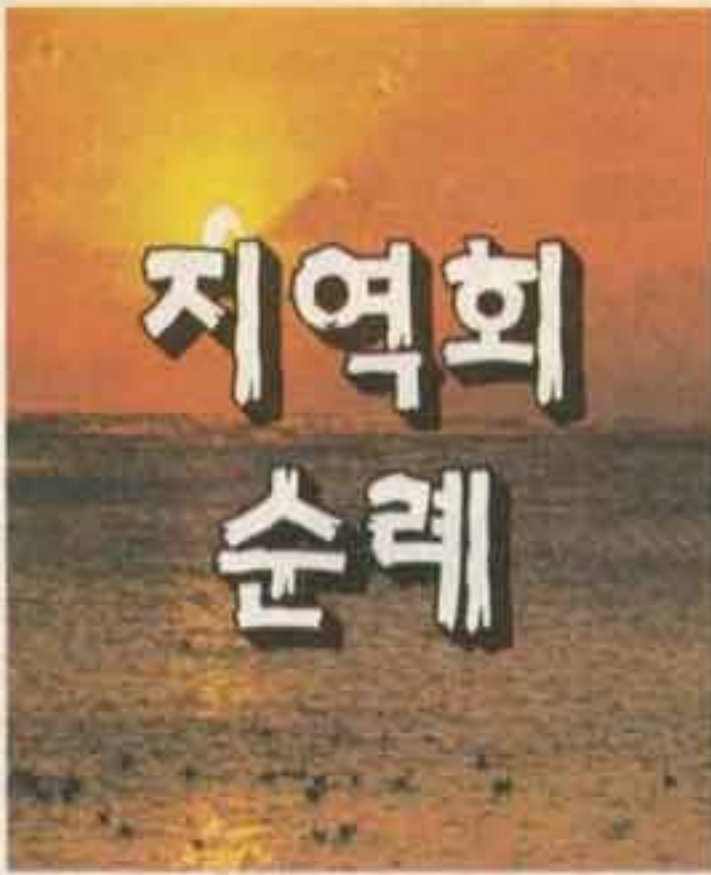
수원지역동창회

- (학계)
金宗度(14회)=수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220-2296. (자택)02-327-3001
최진영(15회)=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장. 240-7614. (자택)02-537-9558
金東圭(19회)=아주대학교 이과대 교수. 219-2434. (자택)0342-711-6374
孔永健(20회)=경기대학교 이과대학 장. 249-9635. (자택)0342-716-5070
한태룡(23회)=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교수. 201-2434. (자택)0342-712-7608
이현국(25회)=경희대학교 도예과 교수. 280-2641. (자택)0347-63-3463
崔弘林(25회)=서울대학교 농생대 동물자원학과 교수. 290-2345. (자택)295-8223
梁才三(25회)=군산대학교. (자택)0335-38-8706
尹進一(26회)=경희대학교 농학과 교수. 201-2608. (자택)0342-703-6848
 (농·상·공계)
張慶永(11회)=부산집(한식당) 대표. 211-1963. (자택)211-1983
金成道(12회)=(주)도스캡 대표이사

- 0335-332-0098. (자택)02-569-4978
崔允洛(13회)=삼성생명 부친 법인 영업팀장. 032-611-2471. (자택)232-3736
沈官燮(13회)=동성철강공업(주). 02-3273-7710. (자택)264-3478
姜統三(14회)=한국식품개발연구원 실장. 0342-780-9080. (자택)0335-34-8420
金益明(14회)=대한정밀화학 대표. 052-231-0601. (자택)0342-702-2710
박수웅(15회)=삼성정밀화학 부사장. 02-772-1704
玉良鍊(17회)=(주)대덕 대표. 292-6842. (자택)291-4087
張海雲(17회)=왕림주유소 대표. 293-6766. (자택)244-9669
許南傑(19회)=(주)한창 대표. 205-3345. (자택)02-544-3912
尹秀相(19회)=일진산업 대표. 222-6063. (자택)02-553-5268
金鍾敏(20회)=대영공업(주) 대표. 0345-491-1091. (자택)02-544-0650
崔龍七(21회)=(주)알트코리아 부사장. 299-7881. (자택)02-502-0169
池聖煥(21회)=남해전자 대표. 293-7420. (자택)0343-24-6975
金東鎬(22회)=태림산업 대표. 223-

(의약계)

- 金士龍**(7회)=(주)성모약품 부사장. 02-922-6881. (자택)246-7176
張大哲(11회)=국제가죽약품 대표. 223-6466. (자택)02-533-5560
이주봉(17회)=이피부과의원장. 251-3350. (자택)251-3353
趙成萊(20회)=세화정형외과의원장. 237-3600. (자택)02-501-2175
金光石(23회)=(주)일양약품 기획조정실장. 02-912-5291
李聖根(26회)=소망동물병원 원장. 0339-356-1595. (자택)0339-356-3324
李哲周(26회)=아주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 219-5211. (자택)0342-704-8897
愼尙燮(27회)=신산부인의원장. 237-0033. (자택)235-2914
 (공무원)
趙境濟(27회)=경기도청 환경정책과 자연생태팀. 249-4237. (자택)234-3610
 (감정평가사)
張泰浩(11회)=수원감정평가사무소. 238-2141. (자택)02-535-5455
 (기 타)
金相煥(11회)=(자택)255-5872
尹英友(13회)=(자택)255-3222
김신부(14회)=(자택)233-1173
朴英準(20회)=(자택)202-8787
金浩永(22회)=(자택)0342-705-6662.



지역회 순례

수원

수원지역동창회가 본보(경남중고동창회보)의 대하시리즈 '지역회 순례'의 2000년 첫 주자로 나섰다. 지난해 12월 본보 제312호에 게재기로 기획된 '수원지역동창회'편은 사정에 따라 올해 첫 연재로 기획됐다. 관계 용마가족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를 바라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연재돼온 '지역회 순례'는 국내외 용마가족의 지역별 결속력과 발전상을 조망, 용마의 저력을 과시하고자 특별기획된 것이다.

올해는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해외지역동창회의 활약상을 조명할 계획이다. 많은 협조와 애독을 당부드린다. <편집자>

80여명 '응집력 不二家'

'10년 전통' 눈앞에

'응집력 불이가(不二家)' 수원지역 동창회. 이곳은 수도권 전진기지이고 경기 수원을 비롯, 인근의 용인과 화성 등지에서 거주하거나 직장 나들이를 하는 동문 80여명으로 결속돼 있다. 그래서 수원지역동창회(이하 수원회)는 수원·용인·화성의 머리글자를 따서 별칭 '수원화회'로 불리기도 한다.

수원회는 현재 최윤락 회장(13회·삼성생명 부천 법인영업팀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조직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다.

'10년 전통'을 눈앞에 둔 수원회는 지난 1991년10월1일 수원·용인·화성지역 동문 60여명의 결속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출정나팔을 불었다. 초대회장으로 김익명 동문(14회·대한정밀화학 대표), 총무로 김종민 동문(20회·대영공업 대표) 등이 선임됐고 이들을 앞세워 동문들이 혼연일체 '적박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끈끈한 정으로 보듬어

'적박한 땅'은 용마가족의 피땀어린 정성을 거부하지 않았다. 화합과 결속의 마음들을 포용, '약진의 썩'을

돋게 했다. 동문과 가족들이 따뜻한 가슴들을 안고 모여 들었다.

끈끈한 정을 주고 받았다. 송년회·월례회·체육대회·야유회 등 각종 행사를 활성화시켜 조직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초대 집행부는 94년12월까지 이끌어 왔다.

1994년 12월 제2대 집행부를 탄생시켰다. 김성도 동문(12회·도스킵 대표)이 회장으로, 이성근 동문(26회·소망동물병원장)이 총무로 선임돼 '도약을 위한 재충전'을 결의했다. 월례회를 비롯해 등산대회·체육대회·야유회·송년회 등으로 우정을 쌓아 나갔다. 특히 경기지역 동문-가

족 체육대회(95.7.5-평택 연암축산원에전문대)와 두 차례의 군부대 동문사령관 초청 단합회(△96.5.18 △97.5.10) 등이 추억 중의 추억으로 손꼽힌다.

이같이 조직 활성화에 심혈을 쏟은 제2대 집행부는 98년 3월19일 정기총회를 통해 재신임을 받고 99년7월 8일 정기총회까지 임무를 수행, 이날 집행부를 최윤락 제3대 회장에게 넘겼다.

농상공계 가장 많아

수원회 산하 동문 80여명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의



약계 경우 (주)성모약품 부사장이인 김사룡 동문(7회)을 비롯, 10여명이 대학병원과 개업의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김동문은 수원회의 좌장 격.

또 △학계는 수원대 교수인 김종도 동문(14회) 등 10여명이었고 △농상공계는 도스킵 대표인 김성도 동문(12회·직전회장) 등 50여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 근무 동문이 20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공무원은 농촌진흥청 연구관인 김정곤 동문(26회)과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조경제 동문(27회) 등 2명이고 △감정평가사로 장태호 동문(11회)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유영업 등 기타 경우 정경영 동문(11회·한식당 '부산집' 운영) 등 10여명이다.



▲ 화기에애한 월례회

◀ 동문사령관의 초청으로 군부대를 방문한 동문-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지역동창회 주요 연혁

연월일	내	용
1991.11.1	수원·용인·화성 지역 거주 및 직장 동문 60여명 발족 회장 김익명(14회) 총무 김종민(20회)	
1994.12	창립총회 회장 김성도(12회) 총무 이상근(26회)	
1995.11.5	경기도 평택시 연암축산원에전문대 전사회 관람 및 체육대회 (경기지역동문 합동모임·평택지역동문들 수고)	
1996.5.18	공군 부대(김동은 방공포 사령관 초청·17회) 연회 및 체육대회 발아구-미군 정교서관에서 정통 미국식사	
1996	홍수담과 12월 정기모임	
1997.5.10	해방대 사령부(전도봉 사령관 초청·16회) 방문. 수원·안양·평택·성남 합동 행사 사령부 의장대 사법·영화 관람 천모전 부부들과 함께 인천 및 민군 친목모임	
1997.9.28	1차 등산행사(가족동반) 수원시 광교산(582m)	
1998.4.12	등산행사 수원시 광교산	
1998.11.12	98년 남회모임 동문가족식 선물 교환	
1998.7.8	정기모임 회장 최윤락(13회) 총무 조경제(27회)	

*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골심맞은 기습거리는 생략 *

마음의 색깔로 꾸며진 알림장 진한 동창애 일깨워줘

△새벽 별 보고 왔다가 밝은 달 보며 가리라'하는 담담한 심정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가는 동문님 모두들 어디 계시는지?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500 겁의 인연이요 부부의 만남을 1000 겁의 인연이라는데, 동문의 연은 맺 겁이나 될런지 아시는 분? (국적은 바꿀 수 있으나 학적은 바꿀 수 없느니라).

△폭우 폭풍 폭염의 3폭을 지나온 이 어느날 자리 한번 하시지요?

수원회의 모임은 항상 이같은 따뜻하고 간절한 그리운 마음이 솟는 전문(前文)으로 된 '알림장' 때문에 성황을 이룬다.

어느 때는 '경' '남' '중고'라는 3행시로 안내장이 시작된다. '경'=경상남도 끄트머리 자락에서도, '남'=남쪽 끝 태종대 자살바위에, '중고'=중고차라도 몰고 한번 다녀 왔으면... 또 '이달의 캠페인'도 실린다. '작은

것은 아름답습니다. 작은 것은 실행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됩니다. 우선 동문들끼

리 자주 안부 전합시다'가 그것. 어떤 알림장 전문에는 이런 마음도 있다.

...생략.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은 지나간 날들은 날려 보내고 가슴 따뜻한 손맛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보잘 것 없는 자신과 상대를 보기보다는 '우리' 뒤에 있는 몇 겹의 인연인지 모르 경남중고교 동문이라는 비밀 언덕을 바라보며 여

기 자주 안부 전합시다'가 그것. 어떤 알림장 전문에는 이런 마음도 있다. '...생략.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은 지나간 날들은 날려 보내고 가슴 따뜻한 손맛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보잘 것 없는 자신과 상대를 보기보다는 '우리' 뒤에 있는 몇 겹의 인연인지 모르 경남중고교 동문이라는 비밀 언덕을 바라보며 여

리 자주 안부 전합시다'가 그것.

어떤 알림장 전문에는 이런 마음도 있다.

...생략.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은 지나간 날들은 날려 보내고 가슴 따뜻한 손맛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보잘 것 없는 자신과 상대를 보기보다는 '우리' 뒤에 있는 몇 겹의 인연인지 모르 경남중고교 동문이라는 비밀 언덕을 바라보며 여

울지는 올해를 만끽해 봅시다.'

이렇게 수원회의 알림장에는 끈끈한 정이 넘치고 사랑이 뜨겁다. 동문들의 동정, 각종 소식, 동문 부인의 생일축하 메시지, 결혼기념일 소개, 결혼기념일에 부인에게 선물하는 것을 까먹고 뒤에 용서를 비는 글, '남공불락'의 장기복합 동문에게 참석을 권유하는 애절한 호소문 등으로 골고 색깔되어 있다

제부도 '모세의 길' 등 명소 즐비 수원갈비·바지락갈국수·조개구이 등 별미도

경기 수원·용인·화성 등지에는 명승지와 이름난 관광지가 많고 수원갈비·바지락갈국수·조개구이 등 토속별미음식도 갖가지다.

수원시내에는 농촌진흥원 옆에 서호가 있다. 여름에는 백로매, 겨울에는 오리매의 서식지다. 또 광교산(582m), 원천유원지, 노송(老松)지대, 팔달산 봉화대가 있다.

특히 남문(팔달문) 북문(장안문) 서문 동문으로 된 4대문과 성곽이 유명하다. 그리고 서문 옆의 시민휴식처인 장안공원, 서울대 농대 뒤편의 즐비한 딸기농원 등이 자랑거리다.

용인시내에는 한국민속촌을 비롯해 용인자연농원인 에버랜드 등이 유명하다. 화성군에는 한국 불교의 본산 중

의 하대인 용주사와 조선조 사도세자 및 그의 비 혜경궁씨의 능인 용릉이 있다. 용주사는 46대 문성왕 16년(854년)에 창건됐고 조선 정조대왕이 생부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증건했다. 특히 화성의 제부도는 하루 두 차례 간조때 바닷물이 갈라져 길을 만든다. 일명 '모세의 길'이 열리는 이곳의 '매바위' 옆 조개구이 별미집들이 길손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제부도 낙조는 화성8경의 하나.

또 겨울철새 도래지이자 얼음낚시의 명당인 남양호, 화성8경의 하나로 천주교 순례지인 남양성모성지도 빼놓을 수 없는 명승지다.

제24회동기회 30주년 HOME COMING DAY 행사조직·준비위원결성

조직원장

서정대
원동희 박홍규 서보호 박창호 성낙원 최창림
준비위원장 김인철
사무국장 박태진 황성동

준비위원

김경남 김규철 김도현 노상우 박해성 박홍근 배종갑 안성윤 안 일 양무도 양인석 정기춘 주점권

재경준비위원장

변중석

준비위원

정영덕 이종구 김구대 하 옥 신병식 왕용상

회장

서정대
수석부회장 박홍규
부회장 공성철 정태운 구자웅 주승환 김경남 최승국 노상우

태창업

양인석
감사 안상수
총무 정기춘
재경회장 정영덕
부회장 유광윤(재정담당)

하 옥(운영담당)

회계 김구대
편집위원장 하 옥
재정위원 구본준 김무성 김영일 김윤수 김중건

민병진

변용준 허구연
운영위원 강정원 김경석 김구대 김호영 왕용상 신병식 조홍래
총무 이종구